

# 환경적 위험/기회 요인에 따른 대응전략 (1/2)

전사관점에서 환경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/평가하고 당사가 우선 관리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 영역에서 실행 방향성과 사업연계에 따른 중대성을 평가(재무영향도/발생가능성), 전사관점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.

- U 공급사 (Upstream)
- O 사업장 (Operation)
- D 고객, 지역사회 (Downstream)

유형	구분	위험요인		발생기간			재무 영향	중대성 평가	대응 전략
		위험요인 정의 및 상세내용	영향범위	단기	중기	장기			
전환 리스크 (Transition Risk)	정책/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규제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탄소중립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비율 확대 및 감축의무 법제화 (단기)</li> <li>- 배출권 할당 방식 변화, 유상할당 확대 (단기)</li> <li>-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규제대응 비용 발생</li> <li>- 탄소세 도입 (장기)</li> </ul> </li> <li>글로벌 탄소 규제,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출 등 추가적 재무적 부담발생</li> </ul>	<span style="color: blue;">U</span> <span style="color: blue;">O</span> <span style="color: blue;">D</span>	●	●	●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친환경 정부지원 투자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년 : 18.1억 (펠릿, 폐열회수)</li> <li>- '24년 : 15.3억 (공압기 효율개선)</li> </ul> </li> <li>재생에너지 투자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2년 : 8억 (상하공장, 태양광)</li> <li>- '24년 : 12.2억 (전사업장, 태양광)</li> </ul> </li> <li>배출권 매입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2년 2.3억, '23년 1.2억, '24년 0.8억 (예상)</li> </ul> </li> </ul>	1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ESG 경영위원회 분기별 온실가스배출량 이행 현황 보고</li> <li>- 사업장별 목표 및 배출량 관리 강화</li> </ul> </li> <li>탄소배출권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출권 관련 정책/규제 파악 및 안건 제시</li> <li>- 배출권 가격 시세 모니터링 (저가매입)</li> </ul> </li> <li>정부지원 사업 적극 참여,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</li> <li>정책지원사업 활용한 투자 확대, 효과성 측정 모니터링</li> </ul>
	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에너지 가격상승, 원재료 비용 상승</li> <li>종이팩 포장재 분담금 의무율 및 비용상승</li> <li>-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소비자 기피현상</li> <li>소비자 (고객) 행동변화</li> <li>- 자원순환 및 친환경 원료 사용 요구증가</li> </ul>	<span style="color: blue;">U</span> <span style="color: blue;">O</span> <span style="color: blue;">D</span>	●	●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쟁 등으로 에너지 비용상승 및 그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</li> <li>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3년 : 21억 → '24년: 22.8억</li> </ul> </li> <li>친환경인증 획득/유지 비용 증가</li> </ul>	2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사 에너지 효율 개선활동 추진 및 투자 진행</li> <li>- 유틸리티 공급설비(보일러, 공압기) 효율개선 집중</li> <li>플라스틱 등 포장재 사용량 감축활동 (3R 전략)</li> <li>- 분기별 ESG 경영위원회 플라스틱 감축량 이행현황 보고</li> <li>유기농/비건 인증 획득/유지 진행</li> </ul>
	평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객사 등 이해관계자의 기후공시 및 ESG 평가결과 요구 증가</li> <li>- 정보 미공개 시, 공개회사대비 경쟁력 하락</li> <li>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 증가 시, 친환경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부정적 평판 형성</li> </ul>	<span style="color: blue;">U</span> <span style="color: blue;">O</span> <span style="color: blue;">D</span>	●	●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하락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</li> <li>부정적 여론 형성 고객/투자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</li> <li>미대응 시 투자금 확보 영향 예상</li> </ul>	3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후 정보공개 (홈페이지 내 ESG 정보공개)</li> <li>ESG 외부 평가대응</li> <li>사업장별 환경실적 관리체계 고도화</li> <li>플라스틱 등 포장재 사용량 감축활동 (3R 전략)</li> <li>-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 등 감축활동 (신규과제 연간 200톤 절감목표)</li> </ul>
물리적 리스크 (Physical Risk)	급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쟁 및 기후이상 발생에 의한 원료 수급 불안정, 품질/가격 변동, 유통망 및 재고관리 어려움 발생</li> <li>자연재해로 피해발생 리스크 및 태풍, 호우 등 영향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</li> </ul>	<span style="color: blue;">U</span> <span style="color: blue;">O</span> <span style="color: blue;">D</span>	●	-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자재 구매비, 운송비 증가</li> <li>피해복구 및 안전대응 비용 증가</li> </ul>	4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자재 수급현황 모니터링/공급망 다변화</li> <li>수급 불균형 공급망 Risk 대응 프로세스 가동</li> <li>파트너사 손해침수 피해지원 (재무적 지원)</li> <li>특별 안전점검 실시</li> </ul>

# 환경적 위험/기회 요인에 따른 대응전략 (2/2)

전사관점에서 환경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/평가하고 당사가 우선 관리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 영역에서 실행 방향성과 사업연계에 따른 중대성을 평가(재무영향도/발생가능성), 전사관점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.

- U 공급사 (Upstream)
- O 사업장 (Operation)
- D 고객, 지역사회 (Downstream)

유형	구분	기회요인		발생기간			재무 영향	중대성 평가	대응 전략
		기회요인 정의 및 상세내용	영향범위	단기	중기	장기			
기회 (Opportunities)	에너지 자원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장 내 공정효율 향상 등 에너지 비용 절감</li> <li>- 온실가스 감축으로 배출권 매입비용 감소</li> </ul> </li> <li>재생에너지 사용확대로 기업 평판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태양광 자가발전</li> </ul> </li> <li>고효율 탈수기 설치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운영 비용 절감</li> </ul>	<span style="color: blue; font-size: 2em;">O D</span>	●	●	●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에너지 절감을 통한 운영비용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실가스 배출량 2% 감축 시, 에너지 비용 약 9.7억원 감소('24년 예상)</li> </ul> </li> <li>배출량 감소에 따른 운영비용 감소</li> <li>폐수처리 오니 처리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2년 14.9억, → '24년 14.3억</li> </ul> </li> </ul>	1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기별 ESG 경영위원회 온실가스 배출량 이행현황 보고</li> <li>- 사업장별 목표 및 배출량 관리 강화</li> </ul> </li> <li>정부지원 적극 참여,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사업장 재생에너지 확대 검토 ('25년 본격 운영, '27년 확대 검토)</li> </ul> </li> <li>폐수처리 오니 발생량 감축활동 이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폐수처리 공정 개선, 고효율 탈수기 도입확대 (~'27년 지속)</li> </ul> </li> </ul>
	제품 /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비자 (고객)구매행동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기농/비건, 무라벨 등 친환경 패키지에 대한 소비자 니즈 확대로 제품 시장 성장 기회 확보</li> </ul> </li> <li>분리배출제도 개정 및 신규 기술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24년 종이팩 표기(일반팩 / 멸균팩)구분</li> <li>- 포장재 제조기술향상 (바이오 플라스틱 등)</li> </ul> </li> </ul>	<span style="color: blue; font-size: 2em;">U O D</span>	●	●	●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친환경 제품판매에 따른 매출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기농/비건 친환경제품 매출비중 증가: '22년도 14.6% → '24년도 15.2% (+ 0.6%p)</li> </ul> </li> <li>멸균팩 수거 캠페인 참여 및 마케팅 효과로 해당 제품 매출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캠페인 판촉비용 증가('23년 0.5억 → '24년 0.9억)에 따른 멸균팩 수거량 증가('23년 7.9톤 → '24년 9.6톤)</li> </ul> </li> <li>기업 평판 향상 등에 따른 투자증가 및 자본 가용성 증가</li> </ul>	1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비자 니즈에 맞는 친환경 제품 개발/판매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트밀, 비건 인증 획득한 차별화된 친환경 제품판매 확대</li> </ul> </li> <li>멸균팩 수거/재활용 캠페인 진행 (상시 수거로 확대 운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J대한통운 방문택배 활용 수거 캠페인 ('24.3~5월)</li> <li>- 멸균팩 새가버치 캠페인/새활용 제품판매 ('23.7~8월, '24.7~8월)</li> <li>- 이마트에브리데이 20개 매장 멸균팩 IoT 회수기운영('24.8월~상시 운영, '25년~ 확대검토)</li> </ul> </li> </ul>
	회복 탄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페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량 인정안도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페플라스틱 사용량 인정안도 5% → 10% 비율 상향 ('23년 12월 시행)</li> <li>-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기술 향상 및 제도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<span style="color: blue; font-size: 2em;">U O D</span>	●	●	●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페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사용 10% 이상 시 표기가능, 해당 제품 홍보 효과로 매출 증가 예상</li> </ul>	3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페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혼합으로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생PE 30 → 60% 혼합확대, 재생PET 10%</li> <li>- '23년 : 76톤 절감, '24년 : 131톤 절감 효과</li> </ul> </li> <li>'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'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부, 한국수자원공사, 서울아리수본부, 먹는물/음료업계 참여</li> <li>- 재생원료 10% 이상 사용 확대 목적</li> </ul> </li> </ul>